

주간에서 한길 가는 동역자분들께

계속되는 장마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더없는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에 쌓여있을 동역자 여러분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1월 초에는 코로나상황이 빨리 끝날 것이라 여겼는데요! 함께 염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감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을 한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의 중점도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 접근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것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코로나나 기타 국내외의 상황을 TV나 신문 활자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에 무심하게 대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으면 처음에는 감염의 우려 때문에 경계하는 표정들이 뚜렷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요를 두려워해서 그런지 겉으로는 큰 소동 없이 조용한 일상을 지내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외국학교나 백화점, 현지 교회들 일부는 개방을 하고 있지만, 학교나 교회의 경우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코로나 음성 확정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몇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부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교회 집회와 학교 휴교령이 몇 차례의 연장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곳 학생들이나 가족들도 코로나로 직장을 잃거나(현지 주재 외국인 영업) 휴직하는 사람이 많고, 이로 인해 결혼과 이사 문제까지 겹쳐져서 언제 안정되는 때가 올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면수업 후 교문 앞에서 반 학생들과>

프놈펜기술학교(PPTS)는 원래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1년의 수업과정을 마치고 9월 첫째 주에 졸업식을 해야 하지만, 올해 3월 중순부터 정부의 휴교령이 내려져 6월초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도 외곽지역이나 시골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휴대폰의 Facebook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휴대폰 데이터요금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연장되는 휴교령에 저희 기술학교도 어려운 형편의 데이터 사용 등의 문제로 6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의 방식으로 8월 중순까지 예정된 일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두 번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이지만 저희 반 학생들 4명은(휴교 기간 중 2명이 그만둔) 한국어 수업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올해 말 신학기에 학교에 다시 등록하여 한국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종강 후 NGO 전체 직원들과>

저는 신학기에 그동안 복음전도의 도구로 교육해왔던 한국어를 현지 선생님께 모두 맡기고 중국어 강의와 미 신앙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현지 선생님(영어 담당)과 협력하여 전도와 예배, 교제 등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돕고 싶

9월초 학교 회의 결과 11월 첫 주에 신학기 개교를 염두에 두고 10월 중순부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해당 공무원처에서 나와 실사를 하고 개교 허락이 되면 저희들의 계획대로 신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올해까지 휴교가 불가피할 경우 내년 1월 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학교의 수업과 교회 예배, 지원사역 등이 연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새로운 교육 자료와 상담 등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8월 중순 모든 학교 수업과 NGO 회계 인수인계를 마치고 9월5일 토요일 입국하여 9월19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타국에 있을 때는 못 느꼈던 한국에서의 코로나 검사와 수속 절차를 밟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거리를 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장 예배가 그리웠었는데,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 자신의 삶에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고 깊은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깊어져서 내 속사람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격리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직접 뵙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평안한 시간들이 얼른 오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변치 않는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힘겹고 지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9월 11일 **박화빈(은미) 올림.**